오해의 더께 걷어 내야 할 '공〈空〉'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② '공(空)'은 어쩌다 '허무'가 되었나: '공'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동안 불교의 공(空)은 '공허·허무·허망'으로 오래도록 잘못 읽혀 왔다. 그러나 〈설문해자〉를 통해 공은 단순히 존재가 지워진 '무(無)의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담기거나 통과할 수 있도록 안이 뚫려 있는 '구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제는 '공'을 허무함이 아닌 가능성의 언어로 다시 봐야 한다. 사진 출처=Gemini 생성 이미지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공염불'이라는 말을 살펴보았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空)'이라는 글자에 수행의 대표어인 '염불'까지 덧붙은 단어가, 어쩌다 허무와 실패의 상징이 됐는지 짚어 보는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그 질문을 한 걸음 더 밀어붙여 보려 한다. 그렇다면 왜 '공(空)'은 이토록 허무하고 부정적인 느낌으로 읽히게 됐을까.

이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과거 서양에서도 불교를 '모든 것이 꺼지는 사상'쯤으로 말해 왔다. 불교를 기독교보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던 니체조차 '공(空)'을 삶의 에너지가 고갈된 이들의 '수동적 허무주의'로 정의했는가 하면, 초기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열반'을 '소멸'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 틈에서 불교의 공(空)은 '공허·허무·허망'으로 오래도록 잘못 읽혀 왔다.

이제 그 오해의 기원을 불교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찾아보려 한다. '허무'라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억울한 누명을 써 온 '공(空)', 이제 그 억울한 속박을 풀고 본래의 당당한 명예를 되찾아 주려 한다.

'제로 콜라' 환영받는데 왜 불교 '공'은 외면받나

요즘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다. 바로 '제로(Zero) 열풍'이다. 현대인들은 이제 당분을 뺀 제로 콜라를 즐겨 마시고, 칼로리를 비운 음식을 찾으며,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실천한다. 이때 '제로'는 결핍에 대한 비애가 아니다. 오히려 가벼움과 건강, 나아가 윤리적 가치를 향한 세련된 환희에 가깝다. '공(空)'이 허무주의라는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동안 '제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세련된 비움으로 추앙받고 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무(無)'가 상태를 담담히 기술하고[무의미, 무조건], '허(虛)'가 내용의 실체 없음을 꼬집는다면[허언, 허상], '공'은 유독 우리 일상 언어 속에서 냉소적인 단죄의 언어로 쓰인다. '공쳤다', '공약(空約)', '공수표'를 내뱉을 때의 온도는 차갑다 못해 시릴 지경이다. 지켜질 가능성이 없다는 허탈함을 넘어, 기대를 걸었던 자신에 대한 자조까지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똑같이 '비어 있음'을 말하는데, 왜 어떤 것은 트렌디한 감각이 되고 어떤 것은 케케묵은 허무주의가 된 것일까.

우리의 기대가 너무 뜨거웠던 것

우리가 '공'에 냉소적인 이유는 '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 자리에 무언가 꽉 차 있기를 바랐던 우리의 욕심 때문일지도 모른다.

성수동 소금빵이 유명하다기에 일부러 퇴근길에 몇 정거장을 더 가 좁은 골목 끝에 줄을 섰다. 고소한 냄새가 코끝에 닿자 '역시 잘 왔네' 싶었다. 그런데 내 앞 한 팀을 남겨 두고 직원이 출입문에 종이 한 장을 붙였다. '재료 소진 금일 품절.' 멍하니 그 문구를 읽다 허탈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중얼거린다. "하…, 공(空)쳤네."

이때 느끼는 강렬한 상실감이 바로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공'을 소비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약속에는 반드시 이행이, 말에는 반드시 보상이나 이득이 꽉 차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믿음과 욕망이 뜨거울수록 '공'이라는 접두사는 배신당한 기대가 내뿜는 날카로운 화풀이가 된다. 결국 '공'이라는 글자가 서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너무 뜨거웠기에 그 온도 차가 '허무'라는 화상을 입힌 것이다.

진공청소기의 '유능함'과 공기의 '생명력'

우리가 씌운 누명과 달리, 사실 일상 속 '공'은 매우 유능한 일꾼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진공(眞空)청소기를 보자.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강력한 힘은 역설적으로 그 내부가 완벽히 비어 있을 때 발생한다. 비어 있지 않은 청소기는 소음만 요란한 플라스틱 덩어리일 뿐이다.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진공(眞空) 포장도 그렇다. 또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게 하는 공기(空氣) 역시 말 그대로 '비어 있는 기운'이다. '공'이 없으면 우리는 단 몇 분도 버틸 수 없다.

허무와 실패의 상징이 된 글자 '공(空)'
높은 기대감 반하는 상실감 투영
〈설문해자〉서는 안이 뚫린 구조 뜻해
비어 있기에 다름 받아들이는 지혜 뜻
고정되지 않은 역동적 가능성의 언어

그런데 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공'을 기능이 아닌 '결핍'으로, 생명이 아닌 '허무'로 읽어 내려 할까. 그 누구도 진공청소기의 '공'자를 보고 '허무하다'고 탄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어 있기에 강력한 흡입력을 갖췄다고 신뢰한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로 가득 찬 마음은 세상을 흡수할 힘을 잃는다. 비어 있어야만 비로소 세상의 지혜와 타인의 마음을 빨아들일 힘이 생긴다.

사진을 지우는 마음, 타인을 맞아들이는 여백

이번엔 스마트폰을 떠올려 보자. 사진을 더 찍기 위해 기존 이미지를 정리할 때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기억을 담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한다. 불교의 '공' 역시 의욕의 '삭제'가 아니라 새로움을 업로드 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을 '확보'하는 일이다. 잡다한 파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삶의 새로운 운영체제(OS)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러한 '공'의 미학은 관계에서도 빛을 발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춤을 출 때, 두 사람 사이에 일정한 여백이 없으면 춤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엉겨 붙은 상태일 뿐이다. 공간(空間)이라는 글자 그대로, 존재는 '비어 있음[空]'과 '그 사이[間]'가 만나 이뤄진다. 나와 너 사이의 적당한 비어 있음이 있어야 그 틈을 통해 마음이 오가고 소통이 시작된다.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타인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설문해자〉와 '구멍'의 미학

한자의 기원을 찾아가면 '공'의 명예 회복은 더욱 확실해진다. 가장 오래된 한자 자전인 〈설문해자〉를 보면, 공(空)은 원래 '구멍'이나 '동굴'을 뜻하는 글자였다. 이는 단순히 존재가 지워진 '무(無)의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담기거나 통과할 수 있도록 안이 뚫려 있는 '구조'를 가리킨다.

이 구조적 비어 있음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도넛이다. 도넛 한가운데의 구멍은 비어 있기에 실패인가? 아니다. 그 구멍이 없으면 도넛은 그저 평범한 튀김 빵일 뿐이다. 구멍이 있기에 도넛이라는 고유한 형태가 완성되고, 손에 쥐기도 좋으며 속까지 바삭하게 익는다.

또 비어 있는 공간의 가치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곳은 주차장이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한 '빈 공간'은 구원과도 같다. 초록 불빛 아래 비어 있는 한 칸은 나를 밀어내는 '결핍'이 아니라, 지친 나를 기꺼이 받아 주는 '환대'다. 불교의 공도 다르지 않다. 나를 지우는 허무가 아니라, 마음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는 지혜다.

'공수래공수거'와 무한한 스테이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은 자포자기나 허무주의적 체념이 아니다. 내 손이 비어 있어야 아침마다 향긋한 커피잔을 쥘 수 있고, 사랑하는 아이의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가장 활기찬 생존의 선언이다.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제 불교의 '공'을 다시 보자. 그것은 소중한 것들이 빠져나간 뒤의 허전한 빈터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고정된 것이 없으니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역동적인 가능성의 언어다. 무대 위가 텅 비어 있어야 비로소 연극이 시작되듯, '공'은 우리 삶이라는 연극이 펼쳐지는 무한한 스테이지다.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돌아온 '공'이 우리에게 묻는다. 이제 '공'이 여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고. 오늘 당신의 마음에는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빈자리가 있느냐고.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